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화교네트워크

일 시 : 2018. 06. 27.(수), 15:00

장 소 :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

제32회 충청중국포럼

- 충청중국포럼은 2015년 5월 출범 이후 충남도와 시, 군 대(對)중국 교류 관련 업무 담당자의 주도적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와 교류의 장으로 개최, 운영되어 왔음.
- 이번 제32회 충청중국포럼에서는 인천대학교 이정희 교수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화교네트워크’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함.
- 이번 포럼을 통해 화교네트워크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중국 일대일로 사업과 화교네트워크를 활용한 충남의 대중국 교류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함.

■ 행사개요

- 일 시 : 2018년 6월 27일(수), 15:00-17:00
- 장 소 :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
- 주 제 :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화교네트워크
- 강 사 : 이정희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조교수)
- 참석대상 : 충남도 및 산하 시, 군 중국교류업무 담당자, 기타 관심 있는 모든 분

■ 행사일정

시 간	주요내용	비고
15:00~15:05	Ⅵ 개 회	사회: 박경철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Ⅵ 인사말씀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
15:05~16:35	Ⅵ 발제 ▸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화교네트워크	이정희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조교수)
16:35~17:00	Ⅵ 종합토론 ▸ 발표자, 참석자	송두범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17:00	Ⅵ 폐 회	

■ 이정희 교수 프로필

▶ 직 위 : 인천대 중국학술원 조교수

▶ 학 력

경북대학교 경제학과(학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석사)

일본 교토대학(京都大學) 문학연구과 동양사학 전공(문학박사)

▶ 경 력

2014.8-현재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조교수

2017.8-현재 중국 칭화대학(清華大學) 화상연구센터(華商研究中心) 특별초빙연구원(교수)

2000.4-2014.8 일본 후쿠치야마공립대학 경영정부학부 전임강사, 부교수, 교수 역임

1997.3-1999.12 영남일보 기자

▶ 연구실적

1) 주요 저서

李正熙(2012.5.31.), 『朝鮮華僑と近代東アジア』(조선화교와 근대동아시아), 京都大學學術出版社, 631쪽(2013년도 일본화교학인학회상 수상).

이정희·송승석(2015.5.29.), 『근대 인천화교의 사회와 경제: 인천화교협회소장자료를 중심으로』, 학고방, 418쪽(2016년도 세종도서 학술부문 우수도서)

2) 주요 논문

이정희(2017.12), 「조선 화교의 성당건축 시공 활동(1880년대~1930년대): 서울과 대구를 중심으로」, 『教會史研究』 51, 한국교회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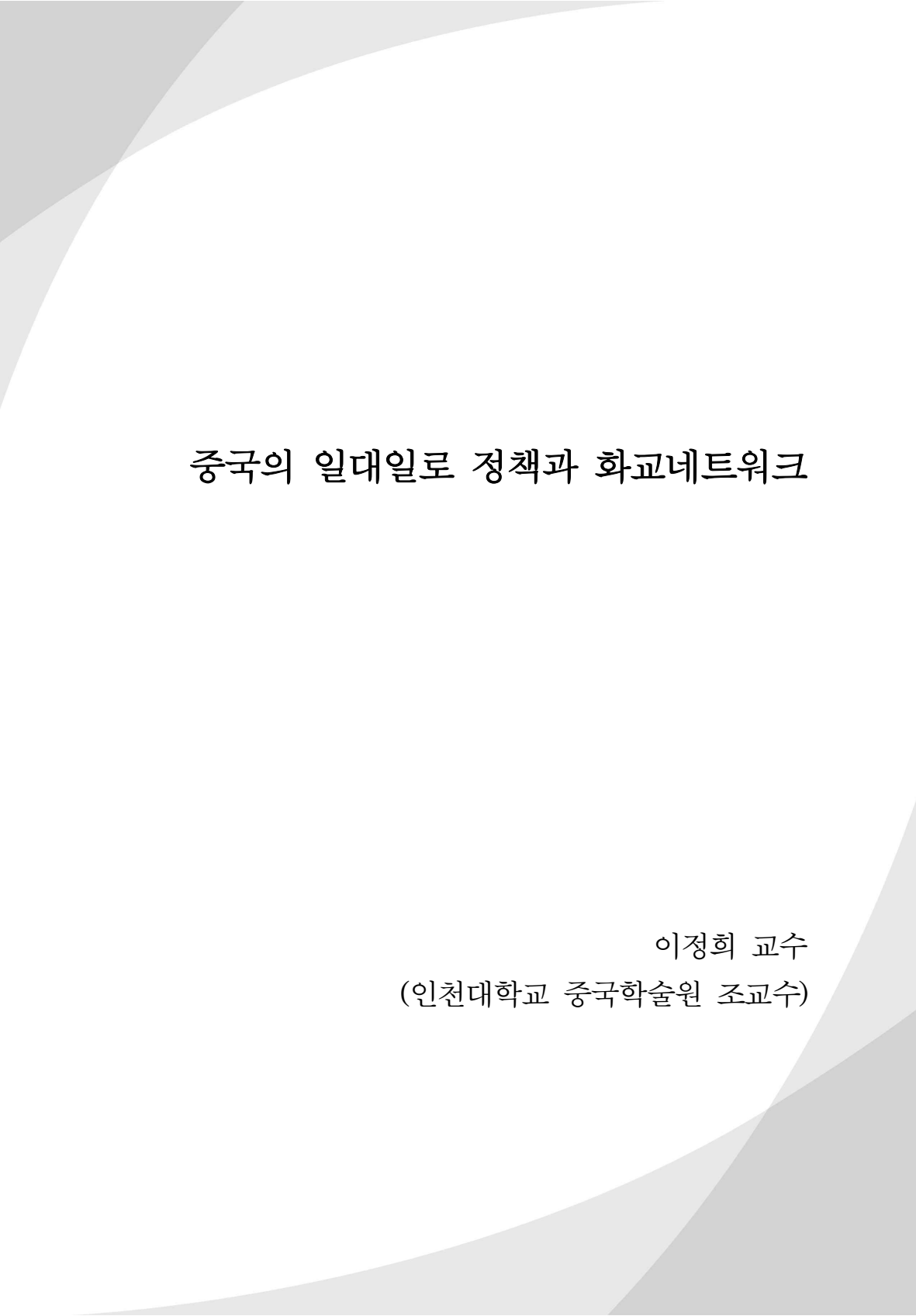
이정희(2017.12), 「조선화교 중화요리점의 실태: 1927-1945년의 시기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41-3(통권65호), 경제사학회

이정희(2017년 겨울), 「이발소와 양복점으로 본 조선화교의 실태: 1890년대~1940년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16, 한국사회사학회

이정희(2017년 여름), 「조선화교의 중화요리점 연구: 1880년대~1920년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14, 한국사회사학회

龔寧·李正熙(2017.6), 「仁川中華街與韓國華僑史: ‘仁川中華街照片展: 老街巷, 小故事’ 紀實」, 『華人研究國際學報』 第9卷第1期, 南洋理工大學中華語言文化中心

이정희(2017.6), 「중일전쟁 시기 조선화교의 항일활동」, 『동양사학연구』 139, 동양사학회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화교네트워크

이정희 교수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조교수)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화교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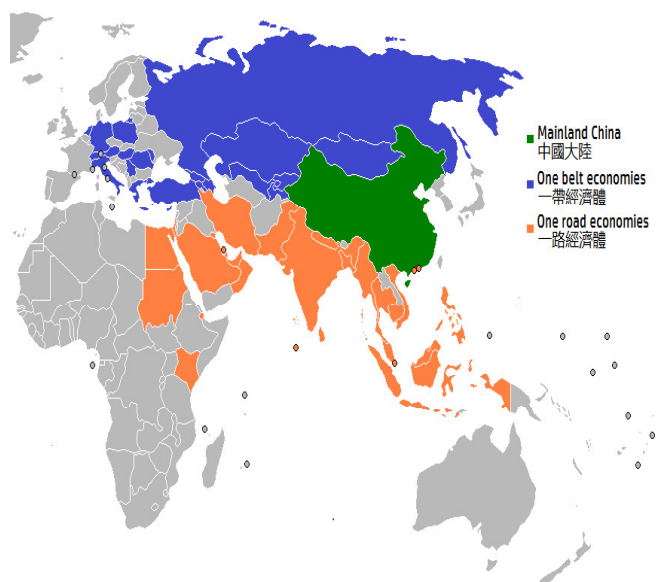
인천대 중국학술원 이정희 교수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화교

일대일로 정책의 시행

- 일대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양실크로드
- 추진 경위: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제창으로 시작되어, 2017년 2월 북경에서 일대일로 국제협력포럼을 개최, 국제적인 이슈가 됨
- 현재 10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
- 중국은 미국, 일본, 한국, 북한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기대

중국의 일대일로



일대일로 추진의 목적

일대일로 정책 추진의 이유

- 추진 목적
 - 1) 중국의 지역불균형 해소와 내수시장 확대, 대외적으로 주변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경제성장 동력 확보
 - 2)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 3) 경제영토 확장과 지역경제 통합의 주도권 확보

One Belt, One Road



일대일로와 화교

일대일로와 화교의 연결

- 5대 핵심 이념: 정책 소통, 인프라 연결, 무역 확대, 자금 조달, 민심 상통
- 화교 연구자의 관점: 중국의 물적 인프라 및 자금과 해외 거주 화교, 화인을 연결시키는 전략
- 현재 세계의 화교화인은 약 5천만명에 달하고 일대일로 추진 지역 거주자가 많음

인천차이나타운 축제



BBC: The Chinese Are Coming

최근 화교 인구 증가 특징

- 중국 개혁개방 이후 이민 증가로 세계의 화교화인 인구는 급속히 증가
- 세계의 화교화인 인구는 5,000만—6,000만 명으로 추산
- 2000년대 들어 화교 인구의 증가 속도가 빠르고 분포가 전세계적으로 걸쳐 있음

광둥성 광저우 진씨사당



화교화인 주요 거주국과 인구

순위	국가	인구
1	인도네시아	1,000
2	태국	705
3	말레이시아	619
4	미국	450
5	싱가포르	265
6	캐나다	155
7	베트남	126.4
8	필리핀	114
9	미얀마	110
10	호주	70
11	일본	65
12	한국	56

근현대 중국인 해외 이주의 패턴

이주의 주요 패턴

- 광둥 농민 북미, 동남아 이주하여 노동자: 19세기 북미 개발과 동남아 식민지 개발
- 광둥, 복건 농민 동남아 이주하여 걸출 기업가: 1970년대 이후 동남아 공업화 기여
- 복주 농민 미국 불법 이민으로 시민권 획득
- 온주(溫州) 농민 구미 이주하여 상인
- 학생, 학자의 구미 이주로 과학기술, 금융 분야 두각

싱가포르 화예관



동남아 주요 국가의 화인 인구 및 각 국가의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 가	싱가포르	말레 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 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화 인 (만 명)	2 6 5	618.7	7 0 5	1 1 4	1000	110	126.4
총 인 구 (%)	7 6 . 8	2 5 . 2	11.3	2 . 0	5	2.2	1 . 5

동남아 화상

민간경제에서 주도적 역할

- 복건 및 광동의 농민이 동남아에 이주하여 걸출한 기업가로 성공
- 1970년대 이래 동남아 공업화 가운데서 급속히 성장
- 대기업 집단
- 다각화 경영
- 중국 투자, 중국 고도경제 성장으로 그 열매를 공유

싱가포르 화예관 사자춤



동남아 화상

성공한 화상의 유형

- 자수성가, 제1대 이민은 이국 타향에서 상업제국을 이룸
- 고난극복형: 陈永裁, 黄双安, 黄奕聪
- 강력한 학습형: 李嘉诚、李文正、林绍良
- 기회포착형: 李嘉诚, 黄奕聪
- 화상합작형: 郭鹤年, 林绍良

중국 칭화대 李文正館 인천차이나타운 사진전



유럽의 화교화인 인구

각 국가의 화교화인 인구

- 프랑스 영국 각각 55-60만명
- 러시아 35만명
- 이탈리아 26만명
- 스페인 16만명, 독일 15만명, 네덜란드 12만명, 아이슬란드 7만명, 오스트리아 3만명, 헝가리 2만명, 포르투갈 1.5만명
- 2003년 유럽 온주화인화교연합회에 의하면, 유럽 거주 온주화인 인구는 50만명에 달함
- 靑田화교는 전세계 22.5만명, 이 가운데 17만명은 유럽에 거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중화가



유럽 화교화인의 경제활동

온주 상인이 대표적

- 모험심 강함: 온주 농민에서 글로벌 무역상으로
- 중국에서 제조된 상품의 대외 무역
- 행상에서 도매업까지 다양
- 모조품에서 브랜드 상품까지 다양
- 중국 제조에서 현지 제조로 바뀜(현지 디자이너 고용)
- Made in China에서 Made in Italy by Chinese

네덜란드 헤이그 중화가



미국의 화교화인

미국 화교화인의 경제활동

- 인구 분포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에 전체의 6할이 거주
- 차이나타운은 20개 이상(Ethnic enclave economy)
- 이전에는 중화요리점, 세탁소 경영자가 많았음
- 신화교의 인구 증가로 과학 기술 방면, 금융 등 미국경제의 중심부와 첨단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냄
- 실리콘밸리, 월스트리트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



화교의 네트워크 -동향회-

인천화교의 동향회

- 1891년 산동동향회조직
- 1899년 남방(浙江省·江蘇省·安徽省 출신)조직
- 1900년 광동방廣東幫조직
- 1930년산동동향회관 증축

산동동향회관 증축기념(1930)



화교의 네트워크

-중화회관 및 중화상회-

인천화교협회의 역사

- 1887년 중화회관 설립
- 1913년 중화상무총회 설립
- 1915년 중화총상회로 개칭
- 1930년 화상상회로 개칭
- 1945년 중화상회로 개칭
- 1948년 남한화교자치구公所 설립
- 1955년 화교자치구로 개칭
- 1960년 화교협회로 개칭

중화회관의 건물(1956)



화교의네트워크

-화교학교-

- 인천화교소학은 1902년에 설립되어 한국의 화교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설립된 학교이다. 인천화교중산중학은 1957년에 설립.
- 한국의 화교학교는 2009년 9월 기준으로 23개소 있다. 화교소학은 19개소, 화교중학은 인천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에 있다.
- 한성화교중학의 역사가 가장 오래됨



종교 네트워크 -의선당과 거선당-

- 인천 의선당은 1893년
인화도 진근처에서 1893
년경 현재 위치로 이전
- 서울 거선당은 1901년
설립, 1907년경 공소 설
- 관우와 마조와 같은 중
국민간 신앙의 신을 모
시고 제사 지냄
- 화교의 중국 전통 문화
계승과 상호간 친목 도



비밀결사 네트워크 -달마불교회-

- 달마불교회 조직은 상
하관계가 매우 엄격함
- 일단 가입하면 불교회를
내부의 엄격한 규칙을
준수해야 함. 또한 내부
의 정보를 철대로 외부
에 누설해서는 안 됨
- 만약 어겼을 경우는 매
로 때려 엄벌에 처했음
- 1960년대 달마불교회의
회원은 2천여명에 달했
음
- 현재는 새로운 회원이
가입하지 않아 연로한
화교만 활동



세계화상대회

세계화상대회의 의의

- 리관유(李光耀) 싱가포르 총리의 주창으로 1991년 싱가포르에서 첫 회의 개최, 현재까지 14회 대회를 개최
- 세계 화교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강화 및 경제적 이익증진을 위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화상들이 매 2년마다 한자리에 모이는 "경제올림픽"
- 2005년 10월 서울대회에선 세계 28개국 2,500여명의 華人기업인과 500여명의 국내기업인이 참석
- 이 대회의 조직위원회는 싱가포르중화총상회, 태국중화총상회, 홍콩중화총상회가 윤번으로 담당
- 각 국가의 중화총상회 단위로 참가하며 한국도 한국중화총상회가 참가하고 있음

제10회 마닐라 세계화상대회 (2009)



화교 네트워크의 특징과 활용방안

화교 네트워크의 특징

- 옹황자손, 중화의식을 바탕으로 화교화인 커뮤니티는 기타 민족에 대해 상당히 폐쇄적
- 화교화인 네트워크 내부의 결속력이 강하고 깊은 신뢰관계
- 기존의 노화교 커뮤니티와 신화교 커뮤니티 간에는 갈등과 마찰
- 중국의 G2 부상과 일대일로 정책으로 화교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경향

화교 네트워크 활용 방안

- 한국화교 사회단체의 활용: 한국중화총상회, 한성화교협회 등
- 화교와 결혼한 한국인 네트워크의 활용
- 한국의 대기업, 금융기관의 네트워크의 활용
- 화교 연구자의 네트워크의 활용
- 화교 학자의 활용

<참고자료>

화교의 의미와 한국 내 화교현황

화교란?

중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1898년 일본 요코하마에 중국인 학교를 세우고 정식으로 화교학교라는 교명을 쓴 것이 화명 명칭 사용의 최초라고 한다. 중국인들이 외국에 이주한 역사는 수천 년에 이른다. 그러나 정식으로 「華僑」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약 100여년 이전인 청나라 말기부터이다. 1898년 중국인들은 일본 요코하마에 학교를 세워 정식으로 화교 학교란 이름을 지어 이 때 세워진 화교 학교들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또한 옛날 청조와 조선이 서로 교환한 문서에 따르면 화교에 대한 명칭이 清朝人, 華人, 清商 등으로 명칭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 후에 청조 農工商部 대신이 작성한 문서에 "화교"라는 단어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華僑를 한자의 의미대로 풀어보면 華란 중국인을 가리키고, 僑란 잠시 거주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즉 외국 영토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모두 통칭하여 "華僑"라 일컫는다. 1909년의 청나라 헌법과 1929년의 중화민국 헌법에 의하면 "외국에 거주하면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두 화교라고 부른다." 라고 나와 있다.

한국 화교의 현황

2010년 현재 한국 화교의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으나, 2001년 5월말 기준으로는 약 22,917명이다. 이 통계는 최근의 현황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하지만,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한국 화교 인구의 큰 흐름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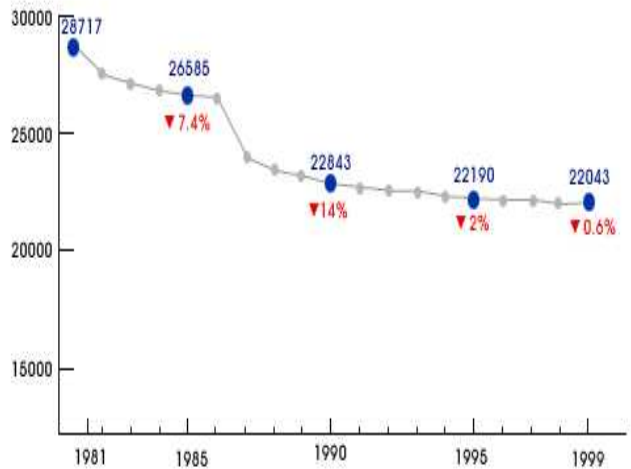
첫째, 80년대와 90년에는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은 해외유학이나 취업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거주여건이 비교적 나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으로의 이민 등이다.

둘째, 그러나 1999년부터 2001까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이른바 IMF 금융위기에 서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되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한도 역시 철폐되는 등 외국인에 대한 여건이 호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급속한 성장 및 한중 교류의 폭발적인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셋째, 2001년부터 최근까지의 현황은 관련 자료를 구하지 못해 정확히 서술하기 어렵지만, 상기 추세에 따라 예측할 경우, 향후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화교 후손으로 이루어진 기존 화교에 최근에 한국으로 건너오는 신이민 화교층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당분간 이들의 수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	계	거주자 (F-2)	기 타
계	22,917	21,978	939
서울	8,987	8,479	508
인천	2,974	2,862	112
경기	2,145	2,057	88
부산	2,030	1,985	45
대구	1,032	1,011	21
충남	811	793	18
전북	749	725	24
충북	728	720	8
강원	632	617	15
대전	568	550	18
경북	562	537	25
경남	420	403	17
광주	366	358	8
울산	331	313	18
전남	296	286	10
제주	286	282	4

〈표1〉 한국 내 화교 분포 (단위: 명)



〈그림1〉 한국 내 화교 인구 변화도

화상 네트워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계 비즈니스맨을 통틀어 일컫는 명칭.

타이완 · 홍콩 ·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와 미국 · 유럽 · 오스트레일리아 등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중국계, 곧 화교(華僑) 기업인들을 통틀어 지칭하는 용어이다. 1970년대 아시아 각국이 자유경제 정책으로 전환하고, 이어 1980년대 중국이 개혁 · 개방정책을 취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해 1990년대 이후부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2003년 현재 타이완을 제외한 화교 수는 총 3,500만 명에 달하며, 이들 화교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동 자산이 최소한 2조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세계 화상 500대 기업의 주식시가 총액도 약 6,000억 달러에 이르며, 최근에는 전 세계에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해 신속하게 자본을 이동시키고 있어 정확한 자본 규모를 추정하기가 어렵다.

지역별로는 화교의 80% 정도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1980년대 이후 미국 · 캐나다 · 오스트레일리아 등지로 이민이 급증하면서 화상들의 경제권 범위도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1999년 통계에 따르면 세계 화상 500대 기업을 국가별로 분류하면 타이완이 240개, 홍콩이 105개, 싱가포르가 67개를 차지해 화상 전체의 82.4%를 차지하였고, 산업별로는 특화된 전문 기업보다는 무역 · 제조업 · 금융 · 부동산 · 관광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영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이후에는 인터넷을 통한 비국가적 조직 사이의 경제교류가 늘어나고, 특히 2000년대 이후 이러한 교류가 급격히 증대하였다. 대표적인 비국가적 행사로는

1991년부터 격년제로 치러지는 세계화상대회를 들 수 있는데, 세계 각국에서 약 1,500여 명의 화상들이 참가한다. 1999년에는 싱가포르의 신문 업계가 공동으로 출자해 세계화상네트워크를 설립하고 10만여 개에 달하는 세계 20여 개 국가의 화상 정보를 수록, 활발한 정보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 금융계에서는 이러한 화상들의 자본을 가리켜 '국경을 모르는 세계 3위의 경제 세력', '세계 제2위의 민족상권'이라고 한다.

출처 : 인천 차이나타운 홈페이지(<http://www.ichinatown.or.kr>), 네이버 지식백과



충청중국포럼 소개

‘충청중국포럼’의 목적은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중국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중국의 부상에 따른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중국관련 지식과 정보, 그리고 대(對)중국교류 관련 업무추진 경험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중국포럼’은 지방차원에서 대(對)중국교류와 전략을 주도하기 위한 지자체와 관련업계 전문가들이 중국관련 지식과 정보, 경험을 교류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은 충남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관련 조사연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충청중국포럼’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한편으론 충남도 및 각 시·군의 교류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연구를 진행하면서, 또 한편으론 ‘충청중국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자문, 서비스 제공, 월례포럼 개최, 그리고 ‘중국 동향과 진단’, ‘중국 지역별 정책동향’ 등 중국 관련정보의 정기 발간과 온오프라인 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청중국포럼’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서, 충남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와 전략을 주도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신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충청중국포럼’ 추진현황

회차	일시	세미나 주제	강사
1회	2015.5.26	<충청중국포럼 출범식> 한중 지방차원의 관·산·학 교류 협력 방안 칠강도시의 미래	강희정(한밭대학교 국제교류원장) 홍원표(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2회	2015.6.25	뉴노멀 중국경제와 충남경제의 시사점	김한수(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본부장)
3회	2015.8.26	정진지 일체화 정책 추진동향과 충남의 시사점	김부용(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4회	2015.9.14	한중3농포럼	
5회	2015.10.28	중국 신형도시화와 3농문제 중국 성장전략 전환과 한국의 기회	리홍보(중국쿤밍이공대학 교수)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박사)
6회	2015.11.25	지방의 대(對)중국 전략	한광수(금강대학교 총장)
7회	2016.1.27	역사적 관점에서 본 환황해권 문화자산 활용 방안 모색	이경복(충남역사문화연구원 기획팀장)
8회	2016.2.24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민원 유형과 대응전략	양광식(광양자유무역청 투자유치팀장)
9회	2016.3.30	한중 FTA 발효와 충남 제조업에 대한 영향	남수중(공주대학교 교수)
10회	2016.4.20	한중 사회적 경제 국제세미나	
11회	2016.5.25	중국의 당·정·군 관계 및 대(對)한반도 정책	조현규(국방부 25사단 부사단장, 前주중한국대사 관/주대만한국대표부 무관)
12회	2016.6.29	충남관광 현황과 중국인관광객 유치전략	고두환(공정여행사 공감만세 대표)
13회	2016.8.31	일대일로를 둘러싼 중국 동북3성의 동향과 충남에의 시사점	홍원표(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14회	2016.9.28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	박인성(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15회	2016.10.26	중국의 지식재산권 정책동향 및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서동욱(특허청 과장, 前주중한국대사관 참사관)
16회	2016.11.30	중국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환황해권 항만 의 대응전략	이주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향분석실장)
17회	2017.1.18	중국 주식시장의 추세와 전망	고정식(배재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18회	2017.2.22	교육과 해외인재유치를 통한 중국의 발전전략	구자역(서경대 인성교양대학 학장)
19회	2017.3.29	중국 농업과 농촌의 변화: 옌타이(烟台)·펑라이 (蓬萊)의 포도와 와인산업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20회	2017.4.25	대중국 지방외교의 과제와 전략	홍원표(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21회	2017.5.30	환황해권 지방외교 활성화 합동 워크숍	
22회	2017.6.29	2017년 충남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 한중 FTA 현황 소개	조광옥(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장)
23회	2017.8.30	중국의 미래권력 전망	홍인표(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 교수, 前경향신문 부국장)
24회	2017.9.25	생태문명 전략과 농촌 발전: 중국 현대 농업정책의 해독	원테권(중국인민대학 농업과 농촌발전학원장/지속가능발전고등연구원장)
25회	2017.11.29	사드 이후의 중국문화산업 전망	이건웅(차이나하우스 대표)
26회	2017.12.13	공주대학교-충남연구원 공동세미나	
27회	2018.1.31	중국의 해양안보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방안	정원식(중국 북경대학교 박사)
28회	2018.2.28	두 중국 도시 이야기1: 상해와 심양	박철현(국민대학교 교수)
29회	2018.3.28	두 중국 도시 이야기2: 상해와 심양	박철현(국민대학교 교수)
30회	2018.4.25	지방자치단체 중국교류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심장보(당진시 합덕읍 주무관, 전(前) 옥환시 파견공무원)
31회	2018.5.30	중국 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 재조명	박경철(충남연구원 중국팀장)
32회	2018.6.27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화교네트워크	이정희(인천대학교 연구교수)

[illegible]

[illegible]